

담양 ‘제13회 송순문학상’ 작품 공모

‘대상·새로운시인상’ 2개 부문… 7월 한달간 접수

담양군이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대가인 면앙정 송순(宋純·1493~1583)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3회 송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는 ‘대상’, ‘새로운시인상’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 새로운시인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응모 기간은 7월 한 달간 진행되며, 11월 중 당선작 선정 후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대상 부문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출간된 신작시집을 대상

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새로운시인상은 첫 시집을 내고자 하는 작가의 시집 한 권 분량(50편 내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면앙정 선생의 문학정신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 유망한 시인들이 담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장흥,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2억 돌파

2023년부터 누적 14억원 모금 성과

장흥군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지난 28일 기준 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23년 시행 첫해에는 5억 6000만원을 2024년에는 6억 4000여만원을 더해 누적 14억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은 작년 대비 2개월 정도 빠르게 모금되었는데 이는 도내 최고의 모금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향우회·기관사회단체 홍보 및 각종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부자를 유치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장흥 사랑 더(+)하기 답례품 포인트 재기부권을 도입하여 기부자의 만족도 제고와 기부금 모금 활

성화를, 온라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 예우 시책을 통해 기부자 효능감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일반기금사업은 ▲찾아가는 행복·문화예술공연 ▲관내 중·고등학교 해외비전캠프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통일주관 ▲정남진 장흥 물축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청소년 셀프 여행 가이드 ▲도담도담 우리아이 언어발달 지원사업 6건 ▲나도 한강 노벨문학 전국 학생 백일장 대회 ▲엄빠와 함께하는 역사 맛보기 2건의 지정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 관광취약계층 170명에 힐링여행 선물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화순군은 29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 소외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17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당일 여행을 지원한다. 장애인 68명, 저소득층 102명을 각각 대상으로 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반 1인까지 추가 지원된다.

여행 코스는 장애인 대상 3종(해남, 순천, 신안), 저소득층 대상 4종(해남, 순천, 신안, 곡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남 주요 관광지와 함께 화순의 개미산 전망대,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운주사 등도 포함돼 지역 관광지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참가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통해 사전 기획된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체험, 인솔 인력 등 여행 전 과정을 1인 18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나비대축제, 꽃·나비·황금박쥐 ‘금빛 물결’

3일간 관광객 6만 1000여명 방문… 황금연휴 ‘대박 조짐’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 쇼·전시관·체험·공연 등 다채

함평군이 지난 25일 화려하게 막을 올린 제27회 나비대축제가 첫 주에만 전국에서 6만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함평을 대표하는 두 생태 아이콘을 중심으로 더욱 풍성한 생태 체험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의 문’ 광장에는 초록빛 보리밭과 클로버, 조형물이 어우러진 ‘하늘보리정원’이 조성돼 있으며, ‘황소의 문’에는 뽕비(뽕내는 나비)와 황박이(황금박쥐)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전시관과 체험·공연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

중앙광장에서는 ‘나비 먹이주기’ ‘나비 날리기’ 체험을 통해 살아 있는 나비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나비를 직접 하늘로 날려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나비·곤충생태관에서도 ‘나비가 들려주는 봄날의 동화’를 주제로 17종 20만 마리의 나비를 만나 보며 ‘가족과 함께 실내 나비 날리

기’ 체험을 할 수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함평에서만 볼 수 있는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는 나비의 문 광장에서 시작

하고 황박이와 나비곤충탈 캐릭터, 나비요정, 미러맨 등이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추듯 중앙광장까지 행진

하여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어 관광객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이 외에도 ‘황박이 모자 만들기 체험’ ‘전통 민속놀이 체험(제기차기, 투호, 굴렁쇠 굴리기 등)’과 생태습지에서 진행되는 ‘물고기 잡기’, ‘징거미새우 잡기’, ‘자전거 타기’, ‘뽕배리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를 포함한 황금연휴가 있어 축제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끝까지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 나비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로서 다음 달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지대만 기자

장성군-지스트-고교, 교육발전특구 성공 운영 함께 한다

김재관·양성·허필원 교수 교육자문관 위촉…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 앞장



장성군이 최근 장성을 근교에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하 지스트) 총장 및 교수진, 장성지역 고교 교장단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장성군은 △지역 돌봄 책임제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문무(文武) 특화인재 육성 △배우고 일하며 함께 사는 장성 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우수인재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지스트 김재관 교수의생명공학과)와 양성·허필원 교수(기계로봇공학과는 교육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스트, 고교와 함께 장성만의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미래형 인재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관련 지역 설명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24일 백수를 이장 회의에서 최근 신규 관광지로 지정된 백수를 대신리 일원의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에 대해 지역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백수를 각 마을 이장 42명과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는 영광군에서 지난 1999년 불갑사 관광지 지정 승인 이후 26년만에 새롭게 지정·고시된 관광지로 약 16만㎡의 면적에 공공 편의시설, 휴양 문화시설, 상가 및 숙박시설, 조경·녹지시

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황홀한 노을과 문화의 장, 체류형 관광이라는 3가지 개발 방향을 토대로 백수해안도로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적벽 버스투어’

어린이날 연휴 특별 운영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29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평소 주 5회(수·목·금·토·일)만 운영하던 인기 관광 프로그램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오는 5월 5일과 6일 이틀간 특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운영은 기존 적벽처럼 화순운전 주차장, 이서커뮤니티센터, 화순적벽 입구 매표소에서 현장 선착순 매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은 불가능하다.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운영 전부터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지난 4월 23일 시작 이후 첫 주부터 폭발적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평소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선 제1의 비경인 ‘화순적벽’을 버스투어를 통해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을 사고 있다.

이번 특별 운영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평소 주말여행이 어려운 여행객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선착순 현장 매표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경우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주최장성군

주관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토 - 5. 11^일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금)

뮤직 페스티벌 5. 10.(토)

나들이 5. 12.(월) - 5. 18.(일)

장성군

2025년

장성군

장성군